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고,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통칭하는데, 최근 금융업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들이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됨.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보험산업에서 핀테크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험회사의 핀테크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와 시장경쟁촉진·혁신장려 사이에 균형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의 금융법 체계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고, 향후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스타트업¹⁾ 및 벤처기업인 스트라이프(온라인지급결제), 온덱(온라인 대출) 뿐만 아니라 구글(구글 월렛; 모바일 전자지갑), 애플(애플페이; 모바일 결제서비스), 알리바바(위어바오; 온라인 전용 MMF 상품) 등 거대 ICT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모형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함.
-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08년 약 9.2억 달러에서 2013년 29.7억 달러로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함(〈표 1〉 참조).
- 국내에서는 작년 카카오페이 등장 이후 정책당국 및 금융업계에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1)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기업을 뜻하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음.

〈표 1〉 글로벌 시장에서의 핀테크 투자규모

(단위: 억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2	9.8	19.8	24.3	27	29.7

자료: Accenture, CB insights.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통칭하는데, 최근 금융업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 등 첨단 ICT기술들이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

- 기존 금융회사들은 이미 ICT기술을 경영에 활용하고 있지만, 주로 미들 또는 백 오피스 중심으로 기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써 그 역할이 국한됨.
-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는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ICT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형을 만들거나, 비금융회사가 ICT기술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를 말함.

〈표 2〉 핀테크 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와 사업영역

구분	내용	주요기업	
금융업무	지급결제	IC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eBay, Stripe
	송금	송금 의뢰자와 수탁자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시켜 송금 수수료를 낮추고 송금시간도 단축	Google, Azimo
	자산관리	온라인으로 투자 절차를 수행하여 자금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최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Alibaba, Tencent
	대출중계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의 수요자(차입자)와 공급자(대출자)를 직접 중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수행	Lending Club, Prosper
기술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또는 기업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Affirm
	금융소프트웨어	보다 진화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Billguard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기반을 제공	Ondeck

자료: UK Trade & Investment, Anthemis Group.

■ 해외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이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금융시스템과 ICT와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페이팔과 애플페이, 중국의 알리페이 등은 각국 통화나 결제시스템의 차이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
- 국내 법규상 비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업 진출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ICT업체가 금융업 진출 시 금융권과 연계하여 초기단계의 서비스를 제공
 - 최근 들어 국내은행들은 다음카카오 등 ICT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위협을 느껴 ICT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하는 양상

■ 국내 핀테크 관련 금융산업 주요 이슈는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핀테크 성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ICT업체의 금융업 진출 허용 가능성, 빅데이터 활용에 있음(〈표 3〉 참조).

-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등 업무영역 확대 시, 기존 고객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고시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ICT업체의 금융업 진입 규제가 낮아지면, 새로운 시장 경쟁자 등장으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으로 이러한 ICT업체와의 인수 및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됨.
- 아직까지 보험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향후 경영효율화 및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 등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표 3〉 국내 핀테크 관련 금융산업 주요 이슈

주요 이슈	내용	보험회사 영향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핀테크 성장	ICT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낮으나,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 지속 강화 전망	지급결제 등 업무영역 확대 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 가능성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²⁾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ICT업체의 금융업 진출 허용 가능성	금산분리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ICT 업체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ICT업체와의 인수 및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빅데이터 활용	향후 빅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다양하고 활용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	경영효율화 신사업모형 창출

2)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용식·황인창(2015),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KiRi Weekly 이슈 참조.

■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표 4, 5〉 참조).

- 개인 및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해 기존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위험률 조정 등을 통해 적정 보험료 산출이 가능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청약 등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활성화가 예상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보험가입 승낙 여부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알고리즘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
-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 시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소프트웨어,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세스 개선이 예상

〈표 4〉 보험업 관련 핀테크 활용

업무	관련 핀테크
상품개발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상품판매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보험금 지급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표 5〉 보험산업 핀테크 도입 사례

회사명	내용
Progressive(미국) Insurethebox(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차량운행 기록 장치나 센서를 장착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사고이력을 분석해 보험료 산정에 이용
Discover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에서 생명보험을 판매해 온 회사로 온라인 건강진단 및 실시간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손목 밴드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 • 수집한 정보는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고, 건강한 식단 및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높임
Tune Insu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를 소유하고 있는 Tune Group은 항공사의 온라인 항공권 발행 및 예약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행자보험을 판매
Friendsu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에서 SNS를 통해 친구들끼리 단체로 기존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 •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이용하여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여 보험료를 큰 폭으로 낮춤
You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보험회사로 홈페이지에 고객의 피드백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 보험산업에서 핀테크 도입의 시사점으로 보험회사의 핀테크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와 시장경쟁촉진·혁신장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
 - 현재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려는 보험회사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서 핀테크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 이는 아이디어 부재로 인한 보험회사의 낮은 핀테크 역량 때문으로 보임.
 - 하지만 핀테크를 주도하는 리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한 보험회사는 그만큼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금융업권의 개인정보 처리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 혁신장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사이에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의 금융법 체계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건전 사전규제’에서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함.³⁾
 -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
 - 전자금융 규제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금융법 체계는 열거주의 방식(법에 근거가 있어야 승인)으로 규제 방식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만 열거하는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kiri](#)

3)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2015. 1. 15),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